

안되는 날...에이스 윤석민 2실점 완투패



17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6 타이거뱅크 KBO 리그'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에서 KIA 선발투수 윤석민이 투구를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넥센전 호투에도 1-2 패배 '불운'

타자들 엉성한 주루 플레이 '한몫'

에이스가 돌아왔다. 그의 불운도 함께 왔다. KIA의 윤석민이 17일 넥센과의 홈경기에서 국내 복귀 후 첫 완투패를 펼쳤다. 9이닝 동안 102개 공을 던진 윤석민은 9피안타 1볼넷 3탈삼진 2실점의 호투로 '에이스의 귀환'을 알렸다. 하지만 이날 경기가 1-2패로 끝나면서 윤석민은 완투패의 주인공이 됐다. 2013년 7월25일 잠실 LG전에서 8이닝 1실점으로 완투패를 기록한 이후 첫 완투패다.

반면 넥센의 '중고신인' 사이드업 신재영은 7이닝 8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윤석민을 제압하고 3연승을 달렸다. 앞선 등판에서 수비에 올랐던 윤석민이 이번에는 엇갈린 주루에 올랐다. 윤석민이 1회 1사에서 고종욱에게 우중간 키를 넘기는 3루타를 허용했다. 이택근의 땅볼 타구 때 필이 홈 승부를 선택했지만 타자주자에 막혀 송구 방향이 좋지 못했다. 그 사이 고종욱이 홈을 밟았다. 윤석민이 3회에도 고종욱을 선두타자 안타로 내보냈다. 이택근을 우익수 플라이로 처리했지만 대니돈과 김민성에게 연속 안타를 맞으면서 두 번째 득점을 허용했다.

2실점은 했지만 윤석민은 유격수 김주형과 포수 이성우의 좋은 수비를 더해 빠르게 아웃카운트를 만들어갔다. 5회를 5개의 공으로 막은 윤석민. 넥센 선발 신재영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다. 주루기인 슬라이더로 타자들의 방향을 유인하면서 이렇다할 위기 없이 6개의 공으로 5회를 넘겼다. 투수전 양상 속에 5회가 끝날 때까지 1시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6회 KIA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 신재영 공략을 위해 KIA가 스피드를 선택했다. 오준혁과 노수광이 빠른 발을 이용해 기습 본트 안타에 성공하며 무사 1-2루를 만들었다. 김주찬이 좌익수 플라이로 물러난 뒤, 필의 타석이 돌아왔다. 2루주자 오준혁이 3루 도루를 시도했지만 공

| | |
|-------------|---|
| ◇17일 광주경기 | |
| 넥센 (1승1패) | |
| 100 100 000 | 2 |
| 000 000 010 | 1 |
| KIA (1승1패) | |

- ▲승리투수=신재영(3승·넥센)
- ▲패전투수=윤석민(1승2패·KIA)
- ▲홀런=(김다원 1호·8회1점·KIA)

이 발보다 빨랐다. 필의 적시타가 나왔지만 2사 1·3루에서 공격이 종료됐다.

7회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다. 선두타자 김주형이 중전안타로 출루한 뒤 김원섭의 연속 안타로 3루까지 내달렸다. 그리고 타석에 이성우가 들어섰다. 초구에 3루주자 김주형이 스타트를 끊었지만 타자 이성우가 바깥쪽 높은 공을 그대로 흘려보냈다. 뒤늦게 3루로 돌아가던 김주형이 아웃이 됐다. 이어 이성우의 타구가 유격수의 호수비에 걸렸고, 스타트를 끊었던 김원섭도 1루 베이스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허무하게 공격이 끝났다.

신재영이 7회를 끝으로 마운드를 물러난 뒤 8회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다. 바뀐 투수 김택형을 상대하기 위해 대타 김다원이 타석에 섰다. 김다원이 초구에 방망이를 휘둘렀고 147km의 직구가 중앙 담장을 넘어가면서 1-2가 됐다. 대타 백용환의 안타와 노수광의 희생번트로 분위기가 KIA에 기울어졌지만 2루수 키를 살짝 넘기는 타구에 대주자로 들어갔던 박찬호의 판단이 늦었다. 뒤늦게 스타트를 끊으면서 3루에 멈춰야 했다. 필의 헛스윙 삼진과 이범호의 우익수 플라이로 추가 득점은 없었다.

넥센 마무리 김세현이 출격할 9회에는 김주형, 김원섭, 이성우가 모두 삼진으로 돌아서면서 윤석민의 완투패가 확정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멀티히트 오준혁 "낮경기 강자 되겠다"

덕아웃 T 특특

▲나는 하지도 못하고 구경만 하네 = KIA 타이거즈 소속 선수 중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한 선수는 두 명이다. 김주찬이 15일 넥센과의 경기에서 타이거즈 역사상 첫 사이클링 히트의 주인공이 됐고, 신종길은 2004년 한화 시절에 최연소(20세9개월21일) 사이클링 히트의 주인공이 됐다. 그 두 기록 현황에 있던 선수가 있다. 바로 '캡틴' 이범호다. 그는 "한화 시절에는 신종길이 기록 달성하는 것을 봤고 이번에는 김주찬이다. 나는 하지도 못하고 두 번이나 구경만 했다"고 웃었다. 엄밀하게 따지면 세 번째다. 지난해 5월9일 홈경기에서 NC의 데이즈가 9회 마지막 타석에서 3루타를 때려내면서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했었다. 당시 3루수는 이범호였다.

▲낮의 강자가 되겠어요 = 17일 넥센과의 경기전 눈길을 끈 타자가 있었다. 오후 2시에 진행되는 경기, 주간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오준혁. 이날 경기 전까지 오준혁의 10경기 타율은 0.214였다. 야간 경기 성적이 23타수 2안타(0.087) 2볼넷 8탈삼진인 반면 한

차례 주간 경기에서는 2개의 3루타를 포함해 5타수 4안타의 맹타를 휘둘렀다. 오준혁은 "낮의 강자가 되겠다. 하나라도 뭉개 보여줘서 주간 경기라도 선발 출전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오늘 넥센 선발 신재영이 경찰청 후임이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의 바랍과 자신감대로 오준혁은 신재영을 상대로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그러나 3루 도루 실패가 아쉽게 남고 말았다.

▲정상적인 날짜로 갑니다 = 비가 야속한 입춘했다. 5선발 입춘혁 얼굴 보기가 힘들다. KIA는 지난 16일 경기까지 세 차례 우천으로 경기가 취소됐다. 우천취소로 첫 등판이 밀렸던 입춘혁은 아직 한 차례 경기에 나오는데 고쳤다. 이번 주말 넥센과의 경기도 로테이션상으로는 헤드-윤석민-입춘혁이었다. 그러나 비때문에 윤석민이 하루 밀어 등판을 하면서 입춘혁의 등판 일정이 사라졌다. 삼성과 롯데를 만나게 되는 다음주 등판은 입춘혁이 아닌 준비된 날짜대로 지크부터 먼저 나서게 된다. 선발 로테이션을 묻는 질문에 김기태 감독은 "정상적으로 지크부터 나가게 됐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40.8m 박병호 대형 홈런

ML 홈런 비거리 2위...미네소타 6-4 승

박병호는 17일 미국 타깃 필드에서 열린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전에 7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 3타수 1안타 1볼넷 1타점을 기록했다. 1안타가 바로 팀 6-4 승리를 이끈 시즌 2호 홈런이었다. 5-4로 앞선 8회말 1사에서 타석에 등장한 박병호는 '잠수함' 조 스미스를 상대로 2B-2S에서 시속 127km 슬라이더를 때려 가운데 담장을 넘겼다. 중견수가 잠시 타구를 쫓다가 포기했고, 공은 중앙 펜스를 넘어 2층 관중석에 착지했다. 박병호의 시즌 2호 홈런이자 홈 구장인 타깃 필드에서 친 첫 번째 홈런이다. 미네소타 구단은 공식 트위터에 박병호 홈런 비거리가 462피트(약 140.8m)였다고 발표했다. ESPN '홈런 트래커'에 따르면, 이 홈런은 올 시즌 메이저리그 홈런 비거리 2위에 해당한다. 1위는 놀란 아레나도(콜로라도 로키스)가 4월 11일 쿠어스 필드에서 친 471피트(약 143.6m) 홈런이었다.



미네소타가 박병호에게 기대한 건 장타 생산 능력이다. 작년 미네소타는 팀 홈런 156개로 아메리칸리그 10위, 장타율 0.399로 12위에 그쳤다. 2010년 이후 5년 만에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 2위에 올랐던 미네소타는 장타자 박병호를 '마지막 퍼즐'로 삼았다. 31타수 6안타를 기록한 박병호의 타율은 0.194에 불과하지만, 안타 6개 중 2루타 2개·홈런 2개로 장타면 4개다. 덕분에 장타율은 0.452를 기록 중이다. <연합뉴스>

되는 날...김주찬 구단 첫 사이클링 히트

<KBO 19번째 기록>



15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6 타이거뱅크 KBO 리그'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에서 KIA 김주찬이 8회말 1사 3루에서 3루수 키를 넘기는 2루타를 친 뒤 넥센 서건창의 태그에 앞서 세이프, 사이클 히트를 달성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50번째 3루타·250번째 2루타는 '덤' "경기 전 밸런스가 안좋아 가볍게 치려 했다"

1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넥센과의 홈경기, 8회 1사3루에서 KIA 김주찬이 타석에 들어서자 관중들이 2루타를 연호하기 시작했다.

1회 첫 타석에서 박주현의 131km짜리 슬라이더를 받아 중앙 담장을 넘겼던 김주찬은 2회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난 뒤, 5회 좌중간을 가르는 안타로 멀티히트에 성공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 7회 세 번째 타석에서 이범호의 145km 직구를 우중간으로 보낸 김주찬은 2루를 지나 3루까지 내달렸다. 이 3루타로 김주찬은 통산 50 3루타를 채웠다. 전주호, 김응국, 김광림, 정수근에 이어 역대 5번째 기록.

그리고 사이클링 히트에 2루타 하나를 남겨놓고 8회 그의 네 번째 타석이 돌아왔다. 넥센의 강속구 투수 김택형의 초구에 김주찬의 방망이가 휘둘렀다. 볼에 이어 다시 헛스윙. 이어 볼 두 개가 연달아 들어오면서 풀카운트까지 승부가 계속됐다. 그리고 몸쪽 낮은 코스로 150km의 직구가 들어오자 김주찬의 방망이가 거침없이 돌아갔다.

총알 같은 타구가 3루수 장시윤의 글러브를 맞은 뒤 좌익선상으로 떨어졌다. 김주찬이 1루를 돌아 2루까지 행했고 간발의 차이로 공보다 먼저 김주찬의 발이 베이스에 닿았다. 프로통산 16번째 사이클

링 히트가 완성된 순간이었다. 무엇보다 타이거즈 역사상 첫 사이클링 히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수많은 타자와 V 10의 역사까지 이룬 타이거즈지만 사이클링 히트 기록은 처음 나왔다. 신종길이 최연소 사이클링 히트(20세9개월21일)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화 시절에 이룬 것이다. 대기록의 현장에 있던 많은 선수들이 "해대 시절까지 해서 한 번도 기록이 나오지 않았느냐?"고 되물을 정도였다.

김주찬은 "경기 전 밸런스가 좋지 않아서 가볍게 치려고 했는데 되는 날인 것 같다. 타이거즈 첫 기록이라서 기쁘다"고 기록 달성 소감을 밝혔다.

또 "(마지막 타석에서) 한점 차면 2루타 생각을 안 했을 것인데 앞에서 (김)다원이 가 적시타를 쳐줘서 무조건 2루를 가지는 생각을 하고 뛰었다. 직구만 노리고 가볍게 중심에 맞추자는 생각이었다. 3루타를 쳤던 상황에서는 팀이 동점 상황이었으니까 한 베이스라도 더 가서 뒤 타자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생각이었다. 야구하고 처음 하는 기록이라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50 3루타를 기록한 김주찬은 사이클링을 완성했던 2루타로 250 2루타(통산 29번째) 선수에도 이름을 올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대성초가 본량리틀구장에서 열린 춘계초등대회 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야구협회 제공>

대성초, 춘계초등 야구대회 우승

대성초가 2016년 춘계초등학교 야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대성초는 최근 본량리틀구장에서 끝난 춘계 대회에서 학강초를 11-5로 꺾으며 3연승으로 우승을 확정했다. 회장배(제12회 천안흥타령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 예선을 겸해 열린 이번 대회는 토너먼트로 진행됐으며, 대성초는 대회 첫 상대 송정동초를 16-6 5회 콜드게임으로 제압한 뒤 화정초를 10-6으로 눌렀다. 대성초는 우승 트로피와 함께 오는 5

월 천안에서 열리는 회장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 광주대표 자격을 획득했다.

- ◇시상내역
- ▲우승 : 대성초 ▲준우승 : 학강초
- ▲최우수선수상 : 한총희(대성초) ▲우수수상 : 김다운(대성초) ▲타격상 : 최선웅(0.750·대성초) ▲최다루타상 : 임시원(5개·학강초) ▲최다타점상 : 김강준(10타점·대성초) ▲감투상 : 정석현(학강초) ▲미기상 : 안재민(학강초) ▲감독상 : 신경호 ▲지도상 : 나혜란(대성초 야구부장) <김여울기자 wool@>